

공 개



의안번호	제 60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2. 21. (제 23 차)

보
고
사
항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한시적 유연화 방안」 보고

금융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12. 21.

1. 보고주문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한시적 유연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중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22.11.28.)에서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된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유연화를 신속히 시행하고자 함

- * 금융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에 해당(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제4항 제2호)

3. 주요골자

금융지주그룹 내 유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3.1.1.부터 ‘23.6.30.일까지** 6개월 간 10%p 확대할 예정임(法§48①3., 令§27④)

-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 한도규제 완화 기한 도래(‘23.6.30.)시, 내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가능

코로나19 대응 당시 총 3차례에 걸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확대한 선례도 존재함(2차례 재연장)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20.4월) → 이후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감독규정§15 8.) → 금융위 의결을 통해 2차례 재연장

4. 참고사항 :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한시적 유연화 방안」 (<별 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한시적 유연화 방안

1 검토 배경

-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
- 이중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22.11.28.)에서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된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규제 유연화를 신속히 시행하고자 함

2 개선 방안

-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3.1.1.부터 '23.6.30.일까지** 6개월 간 10%p 확대(法§48①3., 令§27④)
 -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 한도규제 완화 기한 도래('23.6.30.)시, 내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가능
- 코로나19 대응 당시 총 3차례에 걸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확대한 선례 존재(6개월씩 완화, 2차례 재연장)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20.4월) → 이후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감독규정§15 8.) → 금융위 의결을 통해 2차례 재연장

3 향후 일정

- '22.12.21.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의결 후 시행

(붙임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11.28일 既 발표)

① [은행] 예대출 규제 추가 완화

- 예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출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

②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23.3末)

-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한도: 10%→미적용)(~'23.3末) 및 RP매도 허용 명확화

③ [증권]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NCR 위험값 명확화

-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으로 명확화

* 사모사채를 인수한 형태의 채무보증 이행시(100%) 대비 위험값 감소 예상

④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한시적 완화(~'23.3末)

-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 완화(~'23.3末)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現] 100% → [改] **90%**

⑤ [여전]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23.3末)

-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 완화(~'23.3末)

*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 [現] 30% → [改] **40%**

⑥ [지주]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23.3末)

-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한시적 완화(~'23.3末)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現] 10% → [改]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現] 20% → [改] **30%**

(붙임2)

관계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③ ~ ⑤ (생략)

⑥ 삭제 <2002. 4. 27.>

⑦ (생략)

⑧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 (생략)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12., 2015. 10. 23., 2021. 10. 21.>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6., 2010. 1. 18.>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⑤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 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⑪ (생략)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5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7.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되거나 주식처분 등으로 주요출자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신설 2002. 9. 23, 개정 2007. 12. 13)
8.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0. 5. 27.)

제16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계획서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이 제1항의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금융지주회사 앞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감축계획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

④ 감독원장은 제3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금융그룹감독실
연 락 처	02-2100-2833	02-3145-8211